

역사와 낭만이 함께 숨쉬는 곳!

행주산성 수변길

바야흐로 무르익은 봄 풍경이 절정에 다다른 요즘이다. 따뜻한 봄벌, 향긋한 꽃내음, 봄의 향기에 취하기 딱 좋은 계절, 행주의 생생한 역사 이야기와 아름다운 한강변을 따라 '행주산성 수변길'을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

글 사진. 이은희(고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임진왜란의 격전지, 행주산성

역사와 낭만이 함께하는 행주산성 수변 길의 시작은 행주산성 입구에서 시작된다. 대첩문을 들어서면 권율 장군의 동상이 위엄 있게 서 있다.

행주산성은 한산도대첩, 진주대첩과 함께 임진왜란의 3대첩 중 하나로, 권율 장군의 지휘하에 민·관·군·여성들까지 함세하여 단 하루 만에 3만 명의 왜군을 물리친 행주대첩의 전승지이다.

권율 장군 동상에서 살구꽃 핀 길을 따라 걸으면 오른쪽은 충장사, 왼쪽은 토성 가는 길이다. 토성은 임진왜란 당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으로, 많은 사상자가 나온 곳이나 지금은 새소리만 들리는 한적하고 조용한 오솔길이다. 행주산성(덕양산 124m) 정상에 올라서면 한강의 아름다움과 시원하게 펼쳐진 북한산 그리고 쪽 뺨은 자유로가 한눈에 들어와 답답했던 가슴을 뽕 뚫리게 한다. 뒤로는 행주산성의 상징 행주대첩비와 행주초건비 그리고 아름드리 살구 나무가 만개하여 화려함을 뽐내며 우릴 반긴다. 본디, 행주의 뜻은 살구나루가 많은 물가(한강)의 마을이란 뜻이었다.

행호강 따라 봄을 걷다

행주대첩비에서 진강정으로 경사진 길을 내려가면 '행주수위관측소'가 보인다. 행주수위관측소는 하천의 수위를 관측하는 시설로 일제강점기에 설치된 이후, 1979년까지 관측했다. 건립 당시 토목기술 및 수위측정방식을 알 수 있는 근대 건축물로 인정되어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수위 관측소 옆으로 은빛 물결 한강을 더 돋보이게 하는 방화대교도 보인다. 한강의 다리 중에 제일 길며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형상을 본떠서 만들었다. 또한, 방화대교의 가장 아름다운 매력은 한강을 붉은빛으로 물들이는 환상적인 여름야경이다.

한강의 봄은 행주 어부들의 고깃배들이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계절이다. 조선시대에는 행주 웅어가 임금님께 진상될 정도로 고급 어종이었지만, 지금은 황복과 장어가 32인 행주 어부들의 행복한 만찬이 된다. 행주산성 아래, 한강의 또 다른 이름은 '행호강'이다. 한강물이 행주산성 아래에 이르면 물살은 느려지고 강폭은 넓어져 마치 잔잔한 호수와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정선은 행호강에서 어부들의 고기 잡는 모습과 버드나무 늘어진 행주마을, 멀리 개성의 송악산



행주산성역사공원의 봄 풍경



행주산성의 권율 장군 동상

까지 담은 '행호관어도'를 남겼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행호강 따라 만들어진 데크를 걸어서 108건강 계단을 오르면 옛 군인 초소였던 팔각정에 다다른다. 팔각정은 방화대교와 행주대교를 바라보는 가장 운치 있는 전망대이자 쉼터이다. 팔각정에 설치된 망원경으로 건너편 개화산을 바라보며 겸재 정선이 '행호관어도'를 어디쯤에서 그렸을지 상상해 본다.

역사 이야기가 있는 행주산성역사공원 그리고 봄 풍경

행주산성역사공원은 김신조 사건 이후 무장공비들의 침투를 막기 위해 설치한 군 철책선을 제거하고, 정선의 행호관어도를 토대로 행주마을의 옛 모습을 재현해 42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 의미 있는 역사공원이다.

도보 이야기의 종착지인 역사공원에 들어서면 '이가순 관개 송덕비'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이가순·이원재 선생 부자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이다. 이가순 선생은 원산에서 3·1 만세운동의 주도자가 되어 옥고를 치른 후 고양으로 이주, 고양군이 홍수와 가뭄에 취약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사비로 관개 수로사업을 펼쳐 고양시 경제발전엔 큰 공을 세웠다. 그밖에 고양 8현 중 남효온·이신의 선생, 자랑스러운 고양인에 선정된 권필 선생 등의 시비가 있다. 지금 드넓게 펼쳐진 행주산성역사공원의 봄은 평화로움 그 자체이다. 아빠와 아이가 연 날리며 즐거워하는 모습, 잔디밭 돛자리에 앉아 식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모네의 '풀밭 위의 점심식사'를 연상케 한다. 행의 생생한 역사 이야기와 한강의 아름다운 풍경, 행호

강의 생태 이야기가 담겨있는 이곳이 고양 최고의 힐링 장소가 아닐까? 자연의 싱그러움 봄을 가족,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주산성 수변길' 도보코스를 추천한다. 🌸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걷는 도보관광코스 신청방법

문의 고양관광정보센터(031-905-8396)

코스



행주산성

→

행호강

→

행주산성역사공원



행주산성에서 봄을 즐기는 시민들